

이웃끼리 살피며 복지 사각 막는다

광산구 '1313이웃살림' 추진 이웃단짝·위기가구 상호돌봄

광주 광산구가 이웃이 이웃을 서로 돌보며 사회적 고립,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이웃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각종 사회문제로 발생한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사후지원에서 사전예방으로의 전환'을 기치로 '1313이웃살림' 사업을 추진한다. 광산구가 올해 초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 민생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1313'은 이웃지기 1명이 위기가구 3세대를 돌보고, 위기가구 1세대를 위해 이웃 단짝 3명을 운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용선 광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광산구는 각 마을에서 풀뿌리 복지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동 지사협을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예방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송정1동, 송정2동, 수완동 등 3개동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사협 위원을 '이웃지기'로 양성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1313이웃살림' 대상자를 찾기 위한 위기가구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이웃지기 1명에 위기가구 3세대를 연결하거나 위기가구 1세대에 정기적 살림 활동이 가능한 '이웃단짝' 3명을 매칭한다.

이를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자조모임을 구성하거나 여행, 견기, 영화 등 다양한 주제로 동아리를 만들어 대상자의 사회·문화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광주중소기업 연합회를 주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후원도 있을 예정이다.

광산구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 및 시행에 앞서 지난 6일 장덕도서관에서 강용선 민간위원장을 비롯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6일 장덕도서관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1313이웃살림, 광주+ 광산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 각 동 지사협 위원 등 민간복지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22일 이야기꽃도서관에서 개최한 '명품 30리길 조성 타운홀미팅'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시민과의 정책 소통으로, 1313이웃살림과 더불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광주+ 광산형 통합돌봄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제안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한 동 지사협 위원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현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 간 상호돌봄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다른 지사협 위원은 1인 가구, 산후우울증 가정, 홀몸 어르신 등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을 제안했다.

또 1313이웃살림을 아이돌봄서비스, 육아지원센터와 연계해 신뢰와 유대감이 기반한 '아이돌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1313이웃살림이 조기에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참여사례를 적극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누구 한 명도 소외받지 않는 광산'을 비전으

로 추진 중인 광주+ 광산형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가치와 다양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요구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광주+ 광산형 통합돌봄은 '광주+ 7대 서비스'(가사, 식사, 동행, 건강, 안전, 주거, 일시보호)와 광산구 특화사업(휴블런스, 방문구강,간호지원, 마을밥카페, 서비스채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박병규 청장 직통문자민원 시민과 저장강박 고통을 겪고 있는 독거세대가 각각 1호, 2호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광산구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1313이웃살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광산구만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통합돌봄을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것은 민관 연대와 협력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하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민간복지 활동가들의 지혜와 의견을 받아 광산복지의 저력을 한층 두텁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노사 상생 '좋은 일터 만들기' 확산

7개 기업 노사파트너십 지원 선정

광주 광산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3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지난 2월 개최한 기업인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관내 기업 7개소가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선정 기업은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노사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관내 7개 기업이 선정됨에 따라 관내 기업체의 위기 극복,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발적인 노사 상생,협력 시도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일터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의 유형, 업종에 따라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산구 평동산단 소재한 대경제이엠(주)은 이 사업을 통해 한때 93%에 달했던 퇴사율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노사 상생 기업으로 거듭났다. 민선 8기 '일터 혁신'을 중점 추진 중인 광산구는 이러한 성공 사례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기업인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광산구는 더 많은 기업이 상생·협력의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자체적인 '좋은 일터' 만들기에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노사가 상생하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지역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노사가 적극 소통하며 함께 참여하는 기업 문화가 보편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펼친다

광주 광산구가 고향사랑 기부제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기부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기부금액 10만원 이상 기탁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등 기부자들을 위한 다양한 특별이벤트를 펼친다. 이번 특별이벤트는 10만원 이상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10명 각각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지급 ▲기부인원 1000명, 2000명, 3000명 도달 시 매 1000명씩 기부자 5만원 상당 답례품 증정 ▲기부금 1억원, 3억원 도달 시 매 1억원 단위에 도달된 기부자에게 10만원 상당 인기 답례품을 증정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째를 맞이하는 현재 광산구는 기부액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700명

이 넘는 기부자 중 84%가 10만원 기부자로, 4월 중 모금액 1억원대 도달과 1000명째 기부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광산구를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광산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광산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연 50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기부자에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 30%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주민자치과(062-960-8108)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노년 맞춤 건강운동교실 운영

다음달까지 매주 1회 진행

광주 광산구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년 만들기' 건강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노년층 대다수층인 예방관리 사업 중 하나다.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다음달까지 매주 1회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건강체조를 진행한다.

어르신 스스로 건강측정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혈압계를 대여하고, 건강교육과 구강관리, 우울증 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 한의사 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꾸준한 신체 활동과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환영 자전거 대행진

민주당 이용빈·신정훈 의원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과 신정훈 국회의원(나주시·화순군)이 지난 8일 '광주 삼도동 일대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환영 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했다.

이날 이용빈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광주·나주 자전거 단체와 함께 각각 광주 송정역과 나주역에서 출발해 삼도동 오문제로 집결한 뒤 자전거를 타고 국토부에서 지난달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후보지로 발표한 삼도동 현장을 둘러봤다.

삼도동에 도착한 참여자들은 광주·전남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라남도 영산강 300리 자전거길'의 추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영산강변 자전거길의 연결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광주와 전남을 잇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영산강의 분류와 지류, 하천 독방길을 연결한 자전거길 복원과 생생 방안 ▲지역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발굴해 지역의 새로운 즐길거리, 볼거리의 관광 자원화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자전거대행진을 기획한 이용빈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수단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마을에서 도시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대한민국' 만들기를 제안한다"면서 "시민 참여·지자체 주도 하에 영산강 분류와 지류, 소하천 독방길을 싹틔우듯 연결한 자전거길이 조성돼 가는 과정이 새로운 '자전거 뉴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도가 의지를 가지고 광주와 전남 일대의 영산강변 자전거길을 이어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묶어내는 영산강 300리 자전거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광산구청이 추진 중인 광산구 명품 30리길 조성 사업 등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광주와 전남의 공동 과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